*영어어문교육, 14*권 **4**호 **2008**년 겨울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에 나타난 구원

양승주
(한남대학교)

Yang, Seung-Joo. (2008). Salvation in *Charlotte's Web*.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4), 273-291.

In E. B. White's *Charlotte's Web*, his frequent use of many different salvation-related words such as the thought of death, the fear of death, miracle, sermon, and a minister shows that this work deals with salvation as its main theme. Seen through the environmental lens, the meaning of salvation can be considered within the context of ecological theology, which concerns traditional Christianity as the cause of environmental crisis, and tries to overcome anthropocentric view of nature. The important reason for a pig's salvation is derived from the thought that nature is the creation of God and that man, a part of nature, is not separated from nature even though it is imperfect. The meaning of miracle can be found not only in the form of words in the Bible but also in the mystic ties between the little girl Fern and Wilbur on the barn. This paper discusses how White shows that the characters overcome the anthropocentric view and can get the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Charlotte's Web/salvation/ecological theology/anthropocentric view/miracle, 샬롯의 거미줄/구원/생태신학/인간중심적 사고/기적]

I. 서론

화이트(E. B. White)의 『샬롯의 거미줄』은 아동문학의 고전으로써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처음 출판된 1952 년 당시부터 아동문학의 세 부류 지지자인 아동, 부모, 그리고 문학계의 전문가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호평을 받았다(Griffith 7). 이것은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의 명성이 주로 작품을 즐겨 읽는 아동의 독서경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Alice in Wonderland*)의 명성이 주로 문학계의 전문가들에 의해 먼저 개진된 호평을 통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이례적인 것이다. 화이트의 작품은 이제까지 총 4 천 5 백만 부가 인쇄된 것으로 추산되며, 1984 년 당시 세계적으로 무려 20 종 이상의 번역서가 출간되었고 국내에서도 1980 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 종의 번역서가[1] 나와 있는 것은 출판계로부터 지속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화이트의 작품은 소설로만 읽혀지는 것에 더하여 희곡과 뮤지컬로도 각색되고 있는데, 1983 년 로비네트(J. Robinette)가 원작자 화이트와 공동 작업한 '공인된 무대 버전(authorized stage version)'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로비네트는 최근 작곡가 스트라우스(C. Straus)와 함께 뮤지컬 버전을 내놓기도 하였다(Robinette 7). 2006 년 12 월 미국에서 새롭게 출시된 영화버전은 돼지띠 새해를 맞아 국내에서 소개되는 행사에서 실제 아기돼지가 유모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돼지띠 아기의 출산을 앞둔 부모를 포함하여 많은 관객의 호응을 받은 것은 이제 화이트의 작품의 인기가 매체와 장르의 구분을 넘어서고 있음을 나타낸다.

화이트의 작품에 이와 같은 호평과 관심이 지속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의 작품이 동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환경 또는 생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도 연결됨으로써 보다 큰 반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화이트의 전기 작가인 엘레지(S. Elledge)는 『샬롯의 거미줄』에 묘사되는 "헛간의 자연세계가 헛간을 소유한 농부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46)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웨이크(L. Wake)는 화이트를 "자연 작가(nature writer)"에 속한다고 지적하면서 화이트가 "자연의 필경사(the scribe of all nature)로서 문화와 자연이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104). 이러한 주장이 공통적으로 함축하는 것은 화이트가 인간을 위해 자연이 존재한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문학에서 동물이 등장인물로 묘사될 때 그러한 동물을 인간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볼 것인지, 인간의 속성과 관련된 상징적 존재로 볼 것인지, 또는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고 동물 그 자체로 볼 것인지는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관점이 된다. 화이트는 스스로 『샬롯의 거미줄』의 의미와 관련하여 한 어린 독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떤 알레고리적인 의미도 없으니 긴장을 풀고 읽으라고 말하거나(*Letter* 373), 어느 영화 제작자에게 보내는 1971 년의 편지에서도 상징이나, 정치적인 의미도 없으며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헛간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보고"(*Letter* 614)라고 말한다. 이러한 화이트의 주장은 헛간의 동물이야기의 의미를 도출할 때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거나 알레고리적 틀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동물이야기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이트의 헛간 동물이야기를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웨이크(L. Wake)가 말한 것처럼 "인간중심적인(anthropocentric)" 시각이 아닌 "생명중심적인(biocentric)"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나타낸다(111).

---

[1] 국내에 번역 소개된 것은 1980년 『샬롯테의 거미줄』 (국민서관), 1985년 『우정의 거미줄』 (창작과 비평사), 2000년 『샬롯의 거미줄』 (시공주니어)을 포함하여 모두 3종이 있다.

『샬롯의 거미줄』은 교회 목사의 설교를 포함하여 생명의 구원과 기적에 대한 다양한 언급,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수용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비록 돼지가 작품의 중심인물은 아니더라도 돼지의 구원 이야기는 작품의 주요한 플롯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화이트 자신도 독자에게 보내는 글에서 『샬롯의 거미줄』의 주제는 "돼지가 구원받게 될 것이며,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그런 바램이 있었다"고 말한다(Neumeyer 237). 그리피스가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단일 작품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단행본에 "돼지의 구원(A Pig's Salvation)"이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화이트의 작품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데, 화이트의 작품을 생태문학 또는 환경문학의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구원의 의미에 적용될 때 자연스럽게 생태신학과 연관되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를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환경과 관련한 인간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것의 극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서 돼지 윌버(Wilbur)가 구원받는 이유가 생태신학적 자연관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을 둘러싼 논쟁중의 하나로써 처음 두 장에서 펀의 적극적 태도와 중반 이후에서 나타나는 정반대의 태도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원작인 소설버전 이외에도 화이트가 공동 참여하여 만든 '공인된 무대버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II. 본론

1. 생태신학의 개념

생태위기를 신학적으로 문제화했던 린 화이트(Lynn White)는 전통 기독교 신앙의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자연만물에 대한 경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통치권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통치권을 남용하도록 방조하였다고 지적한다(52-53). 이러한 지적은 내쉬(J. Nash)가 말한 것처럼 "종교에 대한 문화의 영향이 문화에 대한 종교의 영향보다 크다"(116)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생태적 위기의 원인을 기독교 하나로만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생태학계의 비판의 의도는 유효한 것이기에 "기독교는 자연에 대한 착취를 만류하는데 기여한 바가 너무 적었으며, 착취를 부추기는데 너무 많이 기여하였다"(내쉬 111)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인간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전통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상대적으로 소홀이 취급한 결과 하나님과 자연의 상호관련성보다는 양자간의 분리를 초래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물질적 자연의 영역에는 신적 차원이 깃들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한다. 생태신학에 의해 비판 받는 전통 기독교의 신앙은 '자연 안에 계신 하나님(God in Nature)'보다는 '역사 안에 계신 하나님(God in History)'에 강조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라 죄의 관념은 모든 피조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반역한 인간만의 문제로 축소되게 된다. 여기서 생태신학이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과연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며, 인간과 함께 창조되었으며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그러한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것인가라는 점이다.

전통신학이 성령을 주로 개인의 인격적 차원과 교회에 관련되며 피안지향적인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연과 물질세계를 신성한 차원으로부터 단절시켜서 한편으로는 정령주의나 범신론에 의한 자연의 탈 신격화에 도움을 주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도록 하여 하나님과 자연의 분리를 촉진하게 된다. 이와 달리 생태신학은 성령을 우주만물 속에서 활동하는 힘으로 이해하는데, 내쉬는 자연 속에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설명한다.

> 우리는 성례전적 우주 속에 살고 있다. 그 안에서 물질적인 존재 전체는 근본적으로 거룩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계시의 효과적인 매개물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수단이며.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창조는 창조주의 성례전적 자기표출이다. 하나님은 고립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 가운데 존재하므로 세계는 거룩한 분이 거하는 곳이며 성령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주가 성례전적 표징의 복합체인데, 그것은 자연의 요소들과 함께 그 안에 그 아래 숨어 있기는 하지만 참으로 존재하는 성령의 임재를 전달해준다. 성령의 성례전적 임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으로 그 둘은 기독교 사상과 경건에서 서로 결합되는 것이다. (172)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통해 지상에 온 것을 통해 드러나는 성육신(incarnation)의 의미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신과 모든 물질의 관계에 대한 확장적인 비유로 볼 수 있는 바, 그것은 세계 전체를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서 자연에 대한 신격화가 아닌 자연에 대한 성스러운 이해를 강조한다. 내쉬도 성육신의 생태학적 함축성에 대해 "성육신은 인류뿐 만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 가운데 인류와 결합되어있는 하늘과 땅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물에 존엄성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인간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전통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역시 인간을 위한 구원으로만 해석되어 인간을 둘러싼 자연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생태적 관심을 반영하는 생태신학은 성령과 마찬가지로 구원도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생태신학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신학체계에 오늘의 환경위기의 원인이 있다고 보면서 인간과 자연사이의 이원론적 분리, 그리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위계적 지배를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관계론적 사고에서 찾고 있다. 내쉬(J. Nash)는 『기독교 생태윤리: 생태계 보전과 생태윤리』에서 관계론적 사고 또는 관계성이 기독교 창조론에 근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원천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공통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모든 피조물은 친족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151). 그것은 창세기에서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이 같은 요소인 흙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같은 날 창조되었다는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아담(Adam)의 이름이 땅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는 것과, 창세기를 통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창세기 3:19)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생명이 없는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을 나타낸다.

생태신학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과 별개가 아니라 자연에 속해 있으며 그 자연의 한 부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자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단지 몇 가지 면에 있어 질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질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질서와 조화를 유지시키는데 공헌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창조의 매개자로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조화를 유지시켜 나가야 할 책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브래들리(I. Bradley)는 『녹색의 신: 환경주의적 성경해석』에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인간의 역할을 "함께 고통 당하는 자(fellow sufferer)"와 "함께 협력하는 자(cooperator)"라고 지적한다(147). 성경에 있듯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 나머지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 그러나 여기서 지배라는 말을 다른 피조물에 대한 위계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착취와 남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로 간주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오히려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인간에게는 여타 피조물에 대한 특별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 세상의 슬픔을 자연과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하게 만들어나가는 계획에 함께 참여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나타낸다.

생태신학의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역할은 그것이 전제로 하는 자연의 의미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자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브래들리에 따르면 성서의 자연이란 인간에 의해 더럽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본래는 완전했던 자연이 아니며, 자연이란 완성과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연이다(147). 이는 하나님의 창조행위가 태초의 엿새 동안 일어난 격렬하고 폭발적인 단 한번의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계속적 창조(continuous creation)"를 나타낸다(브래들리 82). 창조는 과거에 일어난 단일사건으로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끝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 끝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개방된 계로서의 창조(creation as an open system)"라는 몰트만(J. Moltmann)의 창조 개념 역시 자연의 의미를 매우 적절하게 설명해준다. 즉 생태신학에서 자연이란 완성을 향한 창조의 과정 중에 있는 자연을 말하며 완벽하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 속에 있는 자연을 뜻한다. 이러한 자연은 인간의 눈에 미약하고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일지라도 그 속에는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깃들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인간의 공감,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대한 인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태신학에서 말하는 자연은 신의 최종 목적인 완성을 지향해가는 중에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공감과 협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자연의 개념과 "함께 고통 받는 자"와 "함께 협력하는 자"라는 인간의 역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된다.

몰트만의 안식일의 의미는 인간이 자연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한 예가 된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창세기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엿새 동안의 일만 주목하고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신 일곱째 날의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해왔다. 그러나 생태신학에서 창조의 궁극적 목표는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는데 있으며 스스로의 작품을 즐기며 느긋하게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안식일이야말로 창조의 대단원이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계에 대해 하나님을 대신 할 만한 소유주가 되거나 지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안식일의 고요함 속에서 더 이상 사람들은 노동하면서 환경을 침입하지 않는다.....안식일의 기쁨은 먼저 하나님과의 기쁨이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포함하며, ...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포함하며 생물들뿐만 아니라 창조기사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의 전체 창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기쁨은 오늘날 점점 늘어나는 환경파괴에 직면하여 질문하는 자연과의 평화[의 길]을 열어준다. (396-7)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들어와 다른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세계를 즐기고 기뻐하도록 허락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안식일이 갖는 의미는 자연을 지배하고 간섭하여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피조물로서의 자연을 조용하게 관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생태신학은 성령이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다는 관점에 의거하여 자연과 신 또는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넘어서 인간중심의 세계관의 극복을 시도하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보다 확장된 의미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생태신학에서 말하는 자연이란 완벽한 자연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연을 의미하며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인간에게 공감과 협력을 요구하는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자연에 갖는 책임이기도 하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돼지 윌버가 펀(Fern)에 의해 그리고 샬롯에 의해 목숨의 구원을 받는 일련의 과정이 전개되는데, 여기서 아이의 생명중심적 태도를 통해 어른의 인간중심적 태도를 극복하게 되며, 또한 말씀 계시에 대해 자연 계시를 강조하는 거미의 기적을 통해 돼지의 구원은 생태신학적 차원을 갖게 된다.

2. 생태신학과 『샬롯의 거미줄』

화이트는 "돼지와 거미: 동물 세계의 친구들"이라는 에세이에서 어떻게 살롯의 거미줄을 쓰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즉답 대신 자신이 "동물을 좋아했으며 동물에 관해 글을 쓰는데 실패한다면 이상한 일이 될 것"(Neumeyer 237)이라 말한다. 화이트의 에세이 제목과 대답이 보여주는 것처럼 동물에 대한 사랑은 그의 창작의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메인(Maine) 주에 본인 소유의 농장을 가졌으며 직접 동물을 키워 본 경험이 있는 화이트에게 동물들이 그들을 길러준 사람에 의해 죽게 되는 상황은 작가가 동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농장의 관리자로서 작가는 봄에 조그만 아기돼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여름과 가을을 거쳐서 키우는 동안 돼지와 친해지게 됨에 따라 돼지가 인간의 손에 죽어야 한다는 현실은 작가를 괴롭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고민은 작품을 쓸 때 작가로 하여금 "살롯의 거미줄의 주제는 돼지가 구원받게 될 것이며 마음 속 깊은 곳에 그런 바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퍼 출판사의 독자에게 보내는 글에서도 『샬롯의 거미줄』을 쓰게 된 배경을 동물에 대한 사랑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데, 화이트는 어느 날 돼지에게 먹이를 주러 가는 길에 대부분의 돼지처럼 자신의 돼지가 사람들에 의해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 슬픔을 경험하고 돼지를 구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우연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커다란 회색 거미를 인상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그것은 후에 "농장에서의 우정과 구원의 이야기"(Neumeyer 239)가 되었다고 말한다. 화이트가 자신의 작품에 관해 언급했듯이 돼지 구원의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으로 돼지라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생태신학적 논의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람의 손에 의해 죽어야만 하는 동물에 연민과 사랑을 지닌 화이트는 돼지를 단지 식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구원의 대상으로 보려 했다는 것은 구원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태신학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작가 화이트는 직접적으로 종교적 맥락과 연관되지는 않지만 『샬롯의 거미줄』을 쓰기 이전부터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연관된 것은 1949 년 돈 마르퀴즈(Don Marquis)의 『아키와 메히터블』(*Archy and Mehitable*)의 새로운 출판에서 서문을 작성해준 것에서 엿볼 수 있다. 화이트가 마르퀴즈의 소설의 서문을 작성한 이유는 그가 작가 마르퀴즈를 좋아했으며 젊은 시절 동안 마르퀴즈를 숭배했기 때문이며, 이는 화이트에 대한 마르퀴즈의 영향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엘레지에 따르면 실제로 화이트는 훗날 자신의 작품을 영화화하려는 이에게 거미 샬롯(Charlotte)이 마르퀴즈의 메히터블(Mehitable)과 유사한 유형의 인물이라고 말한적이 있다(43). 마르퀴즈의 작품에서 바퀴벌레 아키는 두꺼비가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에 조롱적인 목소리로 내는 것처럼, 화이트의 작품에서도 헛간 세계에서 인간이 중심적인 것에 대해 풍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비록 바퀴벌레와 인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종류의 우주적 반향"(Elledge 43)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작가 화이트가 자신이 한때 좋아했던 선배작가의 작품으로부터 『샬롯의 거미줄』으로의 영향인 동시에 두 작품 사이의 유사점이 인간중심적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음을 보여준다.

1948 년 『아틀랜틱 먼슬리』 (*Atlantic Monthly*)에 실린 화이트 자신의 에세이 "돼지의 죽음(Death of a Pig)"은 『샬롯의 거미줄』을 예고해주는 것으로2 두 작품은 돼지의 죽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돼지에 대한 작가의 공감 어린 태도를 잘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한편 "돼지의 죽음"에서 개가 살아남고 돼지가 죽지만, 『샬롯의 거미줄』에서 거미가 죽으며 돼지가 죽음의 위기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돼지의 죽음"에서 화자는 단독(erysipelas)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 돼지를 돌보지만 돼지가 죽자 그를 묻어주기까지의 약 삼사일 동안의 이야기를 일인칭의 관점을 통해 묘사한다. 화이트는 "돼지의 죽음"이란 글에서 농장에서 기른 돼지가 병에 걸려 죽게 될 때 돼지에 대한 상실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우리가 느끼는 상실은 햄(ham)의 상실이 아니라 돼지의 상실이다. 그는 배고픈 때의 멀리 떨어져있는 영양분을 나타내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2] 화이트는 현재 뉴욕의 아동문학 사서이며 당시 학생이었던 주커만(Judy Juckerman)에게 보낸 편지에서 "돼지의 죽음"이라는 글과 그 글에서 언급된 사건이 『샬롯의 거미줄』과 연관되는 것을 생각해본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돼지의 죽음"이란 글이 『샬롯의 거미줄』의 전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화이트의 전기작가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의 동통적인 견해이며, 두 작품 사이의 내용상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내게는 분명히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Neumeyer 228)

화이트에게 돼지의 죽음의 의미는 인간에게 제공될 식육의 상실이라는 도구적 존재로써의 돼지의 효용성의 차원에 있지 않다. 화이트는 오히려 인간과 함께 자연 속에 속한 존재로서 동물을 보면서 고통스런 세상에서 돼지 역시 고통을 겪었다는 점 때문에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은 말하는 능력과 쓰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인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을 표현하는 책임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피조물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브래들리가 생태학적 의미에서 인간의 역할이라고 말한 "함께 고통 받는 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돼지의 죽음"이란 글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그것과 영향관계에서 쓰여진 『샬롯의 거미줄』에서도 자연스럽게 계속되어 "함께 고통 받는 자"의 태도로 나타난다. 『샬롯의 거미줄』에서는 함께 고통 받는 자의 역할에 더하여 "함께 협력하는 자"의 태도도 강조적으로 나타나며 또한 그와 관련한 불완전한 자연의 개념은 돼지가 구원받게 되는 주요한 이유로 드러난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윌버가 점차 몸무게가 늘어가고 있을 때 윌버는 늙은 양으로부터 사람들이 봄 돼지에게 살을 찌우는 것은 크리스마스 무렵 돼지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며 그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 되어온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소설버전에서 샬롯은 늙은 양이 헛간에서 오래 살아서 수많은 봄 돼지를 보았을 것이므로 늙은 양의 말이 틀림없는 것이라면서 "그런 일은 내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일이지. 인간이 생각해 낸 것하고는(It's also the dirtiest trick I ever heard of. What people don't think of.)"(51)라고 말한다. 이러한 부분은 "돼지의 죽음"에서 여름과 가을 동안 살찌워진 봄 돼지가 추운 날씨가 오면 도살되며, 봄 돼지를 죽이는 일이 미리 생각되었다는 점에서 일급의 도살이며, 훈제 베이컨과 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데도 그것의 적절성은 의문시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돼지의 생사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정의(justice)에 관한 논쟁의 주제가 된다. 갓 태어난 한배의 새끼 중 가장 약하고 조그만 무녀리(runt) 돼지를 없애기 위해 에러블(Arable)은 '도끼'를 들고 나선다. 몸집이 작고 약하게 태어난 새끼 돼지는 성장과정에서 죽을 가능성이 높으며 생존하더라도 인간에게 햄과 베이컨이라는 식육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없애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 에러블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펀은 "아빠는 돼지를 단지 다른 것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11)라며 "불공정하다는(unfair)"(11) 표현을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단호한 항의를 제기한다.[3] 펀의 항의가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적어도 출생 시 몸무게와 관련하여 인간과 동물을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펀의 항의가 이면적으로 문제로 삼는 것은 돼지가 무녀리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다는 점, 즉 타자화된 자연으로서의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인간중심적인 사고이다. 펀의 항의는 이제까지 동물에 대해 당연시 해왔던 인간중심적인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동물의 생사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도록 요구한다. 아이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동물에 대한 아빠의 태도는 이용가치 또는 도구적 가치에 따라 동물을 죽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인간중심적인 오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선을 지닌 펀이 말한 것처럼 아빠의 태도는 "불의의 가장 심한 경우(the most terrible case of injustice)"(12)가 된다. 펀의 오빠인 에이브리(Avery)는 돼지를 가지고 있는 동생을 보고 샘이 나서 아빠에게 돼지를 달라고 조를 때, 아빠가 "세상에서 불의를 없애려고 일찍 일어난 사람에게만 돼지를 나누어준다"(12)고 말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에이브리의 조름을 물리치려는 단순한 핑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작고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을 죽일 수 없다는 펀의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의 첫 번째 문장, "아빠는 도끼를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11)라는 질문은 아빠의 소재와 도끼의 용도를 묻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을 관계적 시각(relational thought)에서 볼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 되며, 이러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돼지에게 주어진 구원은 인간을 위한 구원과 함께 동물을 포함한 자연만물 모두를 위한 구원의 필요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펀의 질문은 생태신학적인 맥락을 갖는다.

다른 돼지보다 유난히 더 작고 더 약하게 태어난 무녀리는 그의 외적 특성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만 어려움을 견디어 낸 끝에 결국 행복해진다는 구조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The Ugly Duckling)"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는 저체중아 또는 조산아로 태어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아이의 부모와 같은 특별한 경우뿐 만 아니라 불리한 외적 조건을 극복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돼지에게 동일시를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비록 못생긴 외모 때문에 구박과 멸시를 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아름다움(백조의 외모)을 찾아가는 오리의 모습은 윌버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대단한 돼지(SOME PIG)"에서 "멋진(TERRIFIC)," "빛나는(RADIANT)," 그리고 "겸손한(HUMBLE)" 돼지에 이르는 과정과 품평회에서 특별상을 받는 장면과 병치됨으로써 독자에게 돼지에 대한 처음의 외모에 근거한 판단을 넘어서 본래의 가치를 찾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3] 이 논문에서 인용된 텍스트는 소설버전이라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희곡버전을 가리키며 앞으로는 텍스트의 쪽수만을 표시하겠음.

돼지라는 동물의 본래적 가치는 햄이나 베이컨을 의미하는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과 여러 차례 일어나는 기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한 피조물의 본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연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과의 교류와 인간의 협력에 의해 계속적인 창조의 과정을 통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브래들리의 관점과 같다.

태어날 때부터 더 작고 더 약한 윌버는 우리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상의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태신학적인 관점에서 태초에 세상이 창조될 때 자연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되었으며 완성과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연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이 완성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신의 형상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함께 고통 받는 자와 함께 협력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무녀리 윌버는 자연의 일부로 인간의 협력을 받아 완성으로의 계속적인 창조를 이루어가야 하는 신의 피조물이다. 그가 무녀리라는 이유로 인간에 의해 도구적이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판단되어 제거되어야 할 동물이 아니라 창조의 내재적 가치로 인정받아야 하는 신의 피조물이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모습은 로마서의 바울처럼 자신이 지닌 불완전성과 단점 때문에 좌절하고 불안해하면서도 다른 피조물과 함께 신음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완성을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신과 동물의 관계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말구유에서 탄생하는 장면을 통해 예수와 마구간의 동물들의 관계로 암시된다. 아기예수가 소와 양들에게 둘러싸여 짚을 깐 구유에 누워있는 그림은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성탄동화에 자주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와 자연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가 비인간계인 동물과 식물 그리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자연과도 서로 교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윌버가 죽음의 위기로부터 또 다른 구원을 얻는 것은 샬롯이 거미줄에 글씨를 쓰는 것을 통해서이다. 거미줄의 글씨를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쓰여진 성서를 통한 계시만을 중시하고 자연만물을 통해 나타나는 자연 계시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샬롯의 풍자적 태도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샬롯이 "윌버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란 주커만(Zuckerman)을 속이는 것이지. 벌레를 속일 수 있으면 분명히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 사람들은 벌레만큼 영리하지 못하지"(21)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것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바로 그 언어를 통해서 샬롯이 인간을 속이고 윌버를 구원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이다.

샬롯이 거미줄에 쓴 글씨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 헛간의 일꾼 러비(Lurvy)는 안개 낀 아침의 물기를 촉촉이 머금은 거미줄에서 "대단한 돼지(SOME PIG)"라는 글씨를

보았을 때 소설버전에서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무릎을 꿇고 짧게 기도를 중얼거리는 것이다. 그 후 러비와 주커만이 되돌아 와 글씨를 보면서 전율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글씨 자체보다는 글씨가 가리키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주커만 부인이 잠시 동안 글씨가 가리키는 돼지보다는 글씨를 쓴 거미가 진정한 기적임을 아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곧 주변 사람의 반응에 묻히고 만다. 작업복을 양복으로 갈아입은 주커만은 목사에게로 가서 농장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 설명할 때 농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목사 역시 샬롯을 보지 못하고 윌버만을 주목한다. 여기서 목사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단지 목사라고만 언급되는 것은 특정의 목사를 나타내기 보다는 전체 목사를 암시하며, 또한 아래의 소설버전에서 보듯 목사 역시 농부와 마찬가지로 자연 계시를 주목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 다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린 아직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나서 다음 주일 설교 때에 설명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아주 특별한 돼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설교할 때 그것을 말하고 이 지역에 놀라운 동물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지적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한테 이름이 있습니까? (82)

거미줄의 글씨에 관한 소문은 이웃 마을로 퍼져나가 주변 수 마일의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보기 위해 줄지어 모여들고 주커만 가족은 기적의 돼지를 보여주느라 농장은 소란스러워진다. 이것은 목사와 농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치중하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샬롯이 윌버를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거미줄 위에 글씨를 쓰는 동안 펀이 사는 마을뿐만 아니라 품평회를 위해 이동한 곳에서도 사람들은 거미에 주목하지 못하고 윌버에 주목하게 된다. 품평회장에서 확성기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는 “이런 신비로운 글씨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39)라고 잠시 궁금함을 표시해보지만 거미에 주목하지 못하고 거미줄의 글씨가 나타내는 윌버 만을 강조한다.

> 이 기적은 결코 충분히 설명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자연적인 힘을 대하고 있다는 것만을 알뿐이며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39)

소설버전의 경우 학식있는 이들이 거미줄을 연구하고 관찰했음에도 결과는 희곡버전과 마찬가지로 기적의 의미를 간파해내지 못한다. 희곡버전에서 윌버가 확성기로부터 기적에 대한 인간의 설명을 듣는 순간 아무 말없이

샬롯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은 거미줄의 글씨를 쓴 주인공이 샬롯임을 관객에게 주지시킨다. 거미가 글씨를 썼다는 사실은 등장인물 중에 어른들만 모르는 일이 되고 아동인 펀을 포함하여 동물과 관객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 됨으로써 거미가 행한 기적은 어른과 아이 사이의 극적 아이러니를 형성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적으로 드러낸다.

어른 중에서 소설버전에 나오는 도리안 의사만이 거미줄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에러블 부인이 펀의 문제를 상의하러 찾아갔을 때 도리안 의사는 "새끼거미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거미줄 짜는 법을 알지요. 그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110)라고 반문한다. 이는 등장인물에게 거미줄의 글씨가 기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작가 화이트에게는 거미줄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도리안 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사는 인간의 경우 실로 무엇을 짜거나 뜨려는 경우 누군가로부터 배워야만 가능한 일인데,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은 배우지 않고도 일정한 간격과 모양을 가진 거미줄을 만든다는 점에서 거미줄 자체가 기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미의 거미줄 치기와 같은 일이 일견 단순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비스런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작가 화이트는 이 작품의 주제를 "돼지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돼지를 강조하면서도 돼지의 구원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미줄의 글씨에 대한 반응에서 보듯 사람들이 거미 대신에 돼지만을 주목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킹혼(Kinghorn)은 이 작품에서 윌버가 주인공이었다면 그 제목이 그것을 반영해야 하지만, 제목은 샬롯의 중요성을 드러낸다면서 샬롯이 "모든 주제를 표현하고 한 곳으로 모은다"(5)고 지적한다. 돼지의 구원과 관련하여 생태신학적 의미를 드러내는 데서도 보다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은 또한 윌버보다는 샬롯이다. 윌버와 샬롯은 서로 친구로 말해지지만 샬롯이 베푸는 입장이고 윌버는 받는 입장이라는 평범해 보이지 않는 우정을 나눈다는 점에서 샬롯은 윌버에게 "친구라기보다는 구원자"(Griffith 41)의 모습을 더 많이 갖기 때문이다.

『샬롯의 거미줄』에서 펀은 첫 두 개의 장에서 윌버를 구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과 달리 이후의 장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펀의 변화는 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간이 이 작품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려는 작가의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웨이크는 펀이 주변부로 물러나는 것은 화이트가 인간중심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기리는 생명중심의 찬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111). 윌버의 구원자이며 양육자, 헛간생활의 관찰자, 품평회장의 변신의 과정은 모두 인간중심의 태도를 벗어나는 것과 관련이 깊다. 펀은 도끼에 의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으로부터 돼지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항거하였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돼지라는 자연에 대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태도 즉 인간중심적 관점에 대한 항거였다. 또한 펀은

주커만의 헛간에서 윌버와 샬롯의 관찰자로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물과 신비의 교감을 느낀다.

3 장 이후에 펀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은 자연에 간섭하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자연을 관조하는 것이다. 펀은 거의 날마다 규칙적으로 헛간에 가서 돼지우리의 근처에서 우유 짜는 의자에 앉아 동물들을 지켜보며 지낸다. 이를 통해 펀은 헛간의 동물들로부터 믿음을 얻게 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가축들은 펀을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하며 심지어는 양들이 펀의 발치에 와서 가만히 엎드려 있게 된다. 동물들이 펀의 곁으로 다가올 수 있고 펀이 동물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동물들에 대한 펀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펀은 거의 매일 동물들을 찾아갔으며 그들 곁에 머물면서 펀은 “매우 조용하고 다정한(so quiet and friendly)” 태도로 그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15). 이것은 펀이 동물을 귀찮게 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즐겁게 지켜본다는 점에서 관조의 시선을 의미한다. 펀이 의자에 앉아 헛간이 외부에서 윌버를 사랑스럽게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었으며 관조의 대상인 윌버 까지도 즐겁게 만들어주는 관조의 시선이다.

펀이 보여주는 관조의 시선은 동물들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시선은 작품의 시작에서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만을 보려 했던 에러블의 시선과 대조된다. 이것은 작품에서 동물을 포함하여 자연을 대하는 아동의 시선과 어른의 시선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며 아동의 시선이 인간중심의 관점이 아닌 생명중심의 관점임을 드러낸다. 펀의 관조의 시선이 보여주는 조용함과 다정함은 작품의 시작에서 펀이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며 에러블과 대치하던 때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항의와 비교해 볼 때 방법의 측면에서 정반대되는 것이지만 두 가지 모두 동물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펀의 관조의 시선에서 주목할 점은 관조의 시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조를 통해 펀과 동물 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펀이 동물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지 못하며 또한 동물들도 펀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하지만, 펀은 동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에러블이 말한 것처럼 아동의 “활발한 상상력(a lively imagination)”의 작용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에게는 에러블 부인처럼 “정상이 아닌 것 같다(I don't think it's normal)”고 말해질 만한 것이다. 도리안 의사는 아동이 동물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용한 관조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한다.

> 동물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않아요. 어떤 동물이 나한테 다정하게 말을 걸었을 수도 있고 내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어린이는

> 성인보다 주의력이 뛰어납니다. 펀이 주커만씨네 헛간에 있는 가축들이 말을 한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믿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을 덜하면 가축들이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어 대잖아요. (110)

III. 결론

생태신학에서 인간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대안을 관계적 사고 또는 "관계성"에서 찾고 있는데 그것은 거미줄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거미줄은 그것의 생김새가 보여주듯 하나로 연결된 망으로 이루어진 모습은 우주적 차원에서 모든 피조물이 상호관련성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타포로 작용한다. 실제로 거미줄은 샬롯이 곤충과 벌레를 잡고 죽이는 장치라는 점에서 죽음의 장소이며 또한 윌버를 살리기 위해 글씨를 썼던 곳이라는 점에서 삶의 장소가 되어 거미줄은 죽음과 삶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도 거미줄처럼 연결되는데, 봄에 시작하여 여름과 가을을 거쳐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과정은 샬롯의 죽음과 아기거미의 탄생을 통한 생명의 순환과정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 작품에서 쓸모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위의 썩은 알은 템플톤에 맡겨지는데 에브리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샬롯을 잡으려 할 때 돼지의 여물통 밑에서 그 알이 깨져 썩은 냄새로 샬롯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 만일 여기서 샬롯이 에브리에게 잡혀 죽었더라면 윌버의 구원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헛간의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지니면서 서로 연관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샬롯과 윌버의 주요한 무대인 헛간세계에서 19 세기 미국문학에서 나타난 녹색의 목가주의와 기계문명 사이의 갈등관계는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화이트가 묘사하는 헛간 안에는 거름과 건초의 냄새와 함께 잔디깍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와 기계가 동물들과 함께 혼재하고 있다. 또한 거미줄 위의 글쓰기를 통해 사람들의 주목을 모으는 기적의 장면에서 보듯 헛간 진입로에 자동차 행렬이 이어질 때 작가는 각종 자동차의 브랜드와 특성을 여러 행에 걸쳐 나열하고 있다. 이것은 화이트가 헛간 세계를 전원의 목가주의적 세계로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도시 또는 현대문명과 뚜렷하게 대립되는 장소로 묘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장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도심에 관한 에세이집 『여기는 뉴욕』과 헛간 세계를 묘사한 『샬롯의 거미줄』이 모두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그가 "성인기의 대부분을 한쪽 발은 메인 주의 농장에 다른 한쪽 발은 뉴욕의 맨하튼에 두고 지내면서 비록 위태로운 자세이긴 하지만 양쪽 편에서 똑 같이 글을 잘 썼다"(Solheim 150)는 점과 무관하지 하지 않다.

윌버가 여러 차례에 걸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로만 묘사되지 않는다. 그것은 윌버가 작고 약한 무녀리의 상태로부터 통통하게 살찐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적인 면에서도 의미있는 변모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거미줄 위의 글씨를 통해서 “대단한 돼지”에서 “멋지고” “빛나는”을 거쳐서 “겸손한”에 이르는 기적의 행위 동안 윌버는 글씨가 나타내는 의미에 어울리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일종의 거듭남을 보여준다. “겸손한”의 단어가 거미줄에 쓰여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때 윌버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유아적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거미줄 위에 쓰인 겸손이란 샬롯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오만하지 않은(not proud)”이라는 의미와 “땅에 가까운(close to the ground)”(33)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는데, 윌버가 품평회에서 일등상을 타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식육의 처지가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 속에서도 윌버는 자신만을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샬롯의 알을 구해내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것은 거미줄 위에 쓰여진 글씨를 통해 윌버가 자신만을 생각하던 상태에서 이타적인 배려를 할 수 있을 만큼 내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품의 결말은 돼지가 구원을 받고, 샬롯은 아기거미를 낳아 죽음 이후에도 생명의 순환과정을 통해 살아남으며, 펀은 유아적 단계를 넘어서 성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견 모든 것이 잘 해결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모호한 부분들이 풀리지 않는 채로 남아있다. 윌버와 함께 태어났던 나머지의 건강한 돼지들 열 마리는 모두 시장으로 팔려갔으며 그들은 십중팔구 식육이 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헛간의 동물들 역시 식육을 위해 도살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단지 윌버만 살아남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또한 샬롯은 돼지의 구원을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한 것과 달리 곤충이나 벌레들의 피를 빨아먹는 잔인함을 보이는데, 그러한 모순적 태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모두가 현실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특히 이 작품이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팬터지의 세계를 통과한 후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는 구조를 통해 현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위의 두 문제를 고려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윌버만 살아남는 것은 윌버를 단순히 운 좋은 돼지라고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유난히 조그맣고 약해서 다른 돼지의 틈바구니에서 어미돼지의 젖조차 입에 물 수 없던 무녀리 윌버가 살아남는 것은 불완전하게 창조된 피조물로부터 “대단한 돼지(SOME PIG)”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동물의 도구적 가치에 근거한 인간중심적 판단이 얼마나 큰 오류가 될 수 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학적으로 상상된 세계에서도 인간이 먹이사슬의 상부 구조에 위치해 있다는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는 않는다. 이 작품 첫 장면에서 펀이 아빠의 도끼로부터 윌버를 구해 부엌으로 돌아올 때 부엌에서 가족의 아침식사를 위한 베이컨의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은 윌버의

경우를 화이트가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예화를 나타내는 것이지, 무슬림과 힌두교의 가르침처럼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 또는 채식주의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샬롯이 윌버를 구하기 위해 거미줄에 글씨를 쓰는 많은 노력과 희생을 보여주지만, 그와 달리 샬롯이 거미줄에서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잔인하고," "피에 주린(bloodthirsty)" 약탈자라는 점은 화이트가 헛간의 삶을 단순히 감상적으로 미화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내쉬가 말하는 것처럼 헛간의 자연계는 "도덕적으로 모호한 실재"로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리고 죽이고 죽는 관계를 통해 공생하는 가운데 "역동적인 평형상태"(232)를 보여주는 곳이며, 이러한 곳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연계와의 관계에서 다른 피조물에게 처음부터 "타고난 약탈자"(231)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고난 약탈자"인 인간이 자연계에서 기독교의 사랑을 생태학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모순적인 표현인 듯 하지만 "이타적 약탈자"와 "창조적인 약탈자"(내쉬 233, 234)가 되는 것이다.

샬롯이 거미라는 절지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문학의 특징인 '말하는 동물'의 관례에 의해 인간과 관련된 특성을 암시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샬롯을 동물 자체로서 그리고 인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양쪽 편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샬롯은 윌버를 구해주는 구원의 조력자이면서도 동시에 파리와 곤충을 잡아먹어야 하는 약탈자로서의 모습은 인간의 그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윌버가 샬롯에게 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는지를 물었을 때, 샬롯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이유는 샬롯이 윌버를 좋아했기 때문이며, 둘째 이유는 "거미가 모두 덫을 놓아서 살기는 하지만, 알지 못할게 있어. 어쩌면 난 널 도와줌으로써 내 삶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키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 여기서 '어쩌면'이라는 불분명한 표현은 "도덕적 문제에 대한 화이트의 조심스러운 태도"(Elledge 45)를 나타낸다. 샬롯의 이러한 표현은 결과적으로 샬롯이 자신의 "타고난 유전적 특성"을 넘어서려는 태도라는 점에서 샬롯이 타고난 약탈자로부터 이타적 약탈자 또는 창의적 약탈자의 모습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샬롯이 거미줄을 놓고 다른 곤충을 잡아 피를 빨아먹고 살아야만 하는 타고난 약탈자이지만 그들 곤충을 잡아먹을 때 고통을 덜 주려고 먼저 곤충을 기절시킨 후에 피를 빨아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약탈자이면서도 가능한 한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것이 거미의 잔혹한 모습이긴 하지만 불가피한 생존 본능이며 결과적으로 그런 본능은 생태계에서 곤충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데 기여하여 전체적인 면에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샬롯이 약탈자이면서도 이타적 약탈자 또는 창의적 약탈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약탈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연을 "하나님의 경배의 한 표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의 구체적인 표로서 마땅히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는 것” (내쉬 149)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논의된 내용은 주로 희곡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아동문학을 영어교육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 소설버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잘 알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간단한 역할연기를 하도록 하거나 제반 여건이 허락된다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도록 함으로써 『샬롯의 거미줄』의 희곡버전을 의사소통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희곡버전에서 사용된 코러스를 통해서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강조할 수 있을 것이며, 극 내용 전개를 통해서도 거미줄의 기적의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러스 부분의 대사를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써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영작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영어교육 효과와 함께 동물을 포함하여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도하고 죽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면 “문학기반 교육(literature-based instruction)”(Rha 55)의 효과는 기대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내쉬, 제임스 A. (1997). *기독교 생태윤리: 생태계 보전과 기독교의 책임*. 이문균 옮김. 서울: 한국장로출판사.

몰트만, 위르겐. (1999). *창조안에 계신 하느님: 생태학적 창조론*. 김균진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브래들리, 이언. (1996). *녹색의 신: 환경주의적 성경해석*. 이상훈, 배규식 옮김. 서울: 따님.

Elledge, S. (2001). E. B. White and *Charlotte's Web*. *American Educator, 25*, 38-40.

Griffith, J. (1993). *Charlotte's Web: A pig's salvation*. New York: Twayne Publishers.

Guth, D. L. (Ed.). (1976). *Letters of E. B. White*. New York: Harper & Row.

Kinghorn, N. D. (1986). The real miracle of *Charlotte's Web*.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Quarterly*, *11*, 4-9.

Neumeyer, P. F. (1994). *The annotated Charlotte's Web*. New York: HarperCollins.

Solheim, H. (1994). Magic in the web: Time, pigs, and E. B. White. In L. R. Robert (Ed.), *Critical essays on E. B. White* (pp. 144-157). New York: Macmillan P.

Rha, K. H. (2002). Literature-based instruction: The role of children’s literature in teaching of read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8*(1), 55-68.

Robinette, J. (2005). *Charlotte’s Web*. In C. A. Jennings (Ed.), *Theatre for young audience*. (pp. 7-45). New York: St. Martin’s Press.

Wake, L. O. (2004). E. B. White's paean to life: The environmental imagination of

Charlotte's Web. In S. I. Dobrin & K. B. Kidd (Eds.), *Wild things: Children's literature and ecocriticism* (pp. 101-114). Detroit: Wayne State UP.

White, E. B. (1952). *Charlotte's Web*.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White, E. B. (1994). Death of a pig. In P. F. Neumeyer (Ed.), *The annotated Charlotte's Web* (pp. 228-235). New York: HarperCollins.

White, L. Jr. (1998).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In D. B. Dever (Ed.), *The environmental ethics and policy book* (pp. 48-54). Donald V. Dever.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양승주
한남대학교 영문학과
306-791 대전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Tel: (042) 629-8466
Email: sjyj88@hanmail.net

Received in October, 2008
Reviewed in November, 200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08